

삼국시대의 서에 나타난 결핵의 흔적

중국 의서의 도입

삼국은 일시에 잘 갖추어진 국가체제를 갖춘 것은 아니었으며 오랜 시간을 두고 주변의 소국들을 병합해가며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체제를 갖추었다. 중앙집권체제의 출범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의 밀집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구의 밀집현상은 위생문제와 식량문제 등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하여 역질(疫疾)이 유행하는 일이 잦아졌다.

역질의 유행은 조세와 농경, 국방 등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여 질병을 치료함에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필요에 의해 삼국시대의 중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의서들이 고구려로 들어오게 된다.

이 당시에 수입된 의서들은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 장중경(中藏經)의 상한졸병론(傷寒卒病論), 진갈홍(晉葛洪)의 저서인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 화타중장경(華佗中藏經) 등이 있다. 이 책들을 중심으로 결핵과 유사한 질환이나 증상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황제내경(黃帝內經)의 폐와 관련된 서술

황제내경에 폐와 관련된 서술은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황제내경은 음양과 오행의 이론을 바탕으로 생리병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폐가 사람에게 기침을 하도록 한다” “폐가 병이 들면 기침을 한다” 하여 폐가 기침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또한 “폐가 기(氣)를 저장하는데 폐의 기운이 약하면 코가 막히고 기운이 없다”고 설명했다. “음(陰)이 허하면 내열(內熱)을 이룬다”고 하며 명(明)의 이중재의 주(註)에는 “형이 부



죽한 노병의 증상이다”라고 했다.

폐를 병들게 하는 원인은 “땀을 차갑게 하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폐를 상하게 한다” “나쁜 기운이 밖으로부터 폐에 들어온 것을 폐비(肺痺)라고 하는데 기침을 일으킨다”고 했다.

폐가 병이드는 것을 외감(나쁜 기운이 밖에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것)과 무리하게 노동을 하여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같은 병인론은 현대의학에서 설명되고 있는 세균감염설과 재활성화(잠재해 있던 체내세균 혹은 병변이 다시 활동성으로 되는 것)라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

금궤요략(金匱要略)에서는 폐위폐옹해수상기병(肺痿肺癰咳嗽上氣病)의 맥증병치(脈證並治)에 “열이 상초에 있을 때에 해수를 함으로서 폐위가 된다”고 증상을 설명했는데, 그 원인은 “땀을 많이 흘리거나 구토를 하거나 소갈병으로 소변을 많이 보거나 혹은 변비에 걸렸을 때 설사를 시키는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진액을 소모시킴으로 인하여 폐위

에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폐위와 폐옹을 치료하는 데에는 정력자, 길경, 대조, 감초, 생강, 사간, 마황, 세신, 관동화, 오미자, 반하, 맥문동, 인삼, 갱미, 석고, 작약, 계지, 건강, 행인, 후박, 소맥, 택칠, 자삼, 황금 등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의 뜸치료

주후비급방의 치시주귀주방제칠(治尸疰 鬼注方第七)에 결핵과 유사한 오주(五柱)의 증상을 설명했는데 “한열(寒熱)이 나고 임력(淋瀝) 등의 증상이 있다” “오랫동안 앓아서 만성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사후에 주위의 사람에게 전염되어 멸문(滅門)하게 되므로 이런 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급히 치료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의 원인을 치졸중오시방제오(治卒中五尸方第五)에서 설명하기를 “오시란 몸 속에 죽은 사람의 귀신이 붙은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오시에 대한 치료는 땀을 뜨는 방법과 약물을 이용하는 법이 사용되었다. 땀을 뜨는 방법으로는 “유두 뒤 삼촌(三寸)을 뜬다” “심장의 아래 삼촌을 뜬다” 등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 당시의 구법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는 그 전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세한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정치,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도량형이 발달하고 문서의 발전 등으로 보편성을 확립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치료제로는 계자백, 건강, 계지, 염, 갱미, 계골, 행인, 칠엽, 인동, 파두, 용담, 반하, 부자, 치자, 옹황 등의 약물을 단용하거나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살펴보면 오시를 일으키는 원인을 귀신의 사기(邪氣)가 외부로부터 침입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치료를 함에 초기에는 귀신의 사기를 몰아내는 것을 위주로 했고, 증상이 오래되어 만성화되면 사람의 오기(五氣)를 보하여서 오기 사기를 몰아내도록 돕는 치료를 했다.

중장경(中藏經)에서 전염병 언급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화타중장경(華佗中藏經)에서는 “본 병은 일가뿐 아니라 널리 전염되어 발생하는 것인데 혈기가 허약해지면 귀기의 사로 인하여 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며 또 주식이나 바람과 비가 몰아칠 때 섭생을 잘 하지 못하여 이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문병조상을 갔을 때 병사의 기와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염되는 까닭에 전시(傳尸)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간략하게나마 당시의 의서에 나타난 폐결핵과 유사한 증상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우선 해부학적인 고유명칭인 ‘폐’ 라는 술어가 등장한 것은 특기할 일이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증상들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자세하고 그 치료법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전염성을 의심했고, 그 나름대로 예방 및 조기치료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卍

이 내용은 대한결핵협회가 발간한 한국결핵사(저자: 김대구)에서 인류의 역사상 결핵사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 것입니다.